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교회

저자 (Authors)	김학철
출처 (Source)	새가정 67 , 2020.6, 15-19 (5 pages)
발행처 (Publisher)	새가정사 Christian Home&Family Life Association in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44448
APA Style	김학철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교회. 새가정, 67, 15-19.
이용정보 (Accessed)	연세대학교 165.***.14.104 2020/07/11 23:2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교회

김학철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로 기독교교양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여러분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잘못 생각하여 해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33절은 부활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 거기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 예피소드를 꺼내 들어 예수를 공격한다. 일곱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고 자식이 없어 죽었고, 둘째가 당시의 형사취수훈에 따라 형수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 역시 자식이 없어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의 일곱째까지 그렇게 그 여인과 혼인하였으나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런데

부활이 된다면 그 여인은 그때 누구의 소유가 되냐고 사두개인들은 질문한다. 이에 대해 예수의 대답은 이렇게 시작한다. “여러분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 잘못 생각하여 해매고 있습니다(마22:29).” 예수는 두 가지를 들어 비판한다.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여 해매고 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 같다.

성경을 모른다

우리나라 교회만큼 성경의 형식적 권위를 높이는 데는 많지 않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모두 틀림없다는 이른바 문자주의적 무오류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여긴다. 그러나 성경의 문자적 무오류 주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근대에 들어서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다. 근대주의가 들어서며 기독교의 권위가 위태롭자 그에 대응하는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근본주의고, 그것이 성경의 문자적 무오류를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파인 장로교의 시조격인 칼뱅이나 감리교의 웨슬리 모두 성경의 영감설을 말했지만 둘 다 문자적 무오류설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문자주의적 무오류설을 받아들임으로 생겨난 결과다.

문자적 무오류 주장은 성경의 권위를 드높인 듯 보이지만 한국교회는 그것을 강조만 할 뿐이다. 부끄러운 현실은 한국교회의 성경 이해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신천지라는 이단이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비 집단은 기성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 비판의 의도와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비판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성경은 최소 약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와 근동지역에서 생겨났다. 따라

서 21세기 한국에서 이것을 읽고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 문화, 종교, 정치, 사회 등의 종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관성과 적절성을 갖추어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학문적으로는 ‘비평’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성경 비평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상식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만연한 것은 성경 본문의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은혜 받는 방식의 읽기일 뿐이다. 역사도 문화도 사회도 모두 삭제한 채로 자기의 욕망이나 관심사를 성경에 투사하여 자기 말을 성경이 하도록 한다. 나는 이것을 성경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읽으려는 시도도 그러하다.

적지 않은 한국교회가 성경의 창세기를 과학책으로 읽고자 한다. 이른바 창조과학이다.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우주의 기원과 탄생의 방법을 말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정체와 위치와 질서와 의미와 관계를 설명한다. 그런데 창조과학을 주장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이들은 창세기를 근거로 진화론이나 빅뱅이론 등에 시비를 건다. 성경을 성경으로 읽지 못하고 과학책으로 읽는 어리석음이다. 성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처럼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현상이 없다.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이육사의 시어를 두고 “무지개는 빛이 수증기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산란현상이니 강철로 된 무지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누군가 평한다면 그는 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이육사는 위대한 시인이니 그가 분명히 강철로 된 무지개를 보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어리석다. 시를 알고 과학을 아는 사람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없어도 그 시가 매우 감동적이고 유효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창조과학적 성경읽기는 강철로 된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른다. 한 이단 교회의 ‘타작 마당’에 관해서 듣고 본 바가 있다. 교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공 예배에서 힘차게 교인들의 땀을 때린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회개하라며 폭행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잘못을 절대 봐주지 않고 그에 합당한 폭행을 시행하고 난 후에야 다시 그들을 감싸 안는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교회에 속한 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인관계에 들어서려 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인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머리카락을 잘라 버린다. 이런 노골적이고 육체적인 폭행에 우리는 모두 기겁하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 상을 가진 이들은 거기에만 있을까?

태풍이 와서 큰 피해가 생기면 동성애가 성행한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고 하고,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 벌을 내렸다고 한다. 바이러스가 돌아 모두 협력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 공산주의가 교회를 탄압하여 그 지역에서 그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유행했다고 설교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교회 밖 교양인들은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사고를 하는 이들이 과연 과학,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지리, 역학, 의학적 상식이 있는지, 아니 인류애적 감수성이 있는지를 의심한다. 나는 그런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며 심술궂은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폭행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144,000명만 구원한다고 믿고 다른 이들을 무한 경쟁자로 여기며 그 숫자 안에 들어 환란을 피하고 마침내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현재의 가정과 사회와 학교를 등진 사람들이 과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기적이고 주술적인 이단적 사

고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집단으로 모이는 예배를 잠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종교 탄압으로 간주해 항의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겹쳐서 돌이켜 보아야 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는 예언자의 외침이 외면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 번 “공홀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뜻을 배우라(마9:13)”고 말씀하셨다.

잘못 해매고 있습니다

신앙은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며, 삶에 통찰을 갖는 것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분별과 통찰은 내가 혼자 얻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토론하고 합의하고 견제하는 데에서 온다. 현대 과학은 우리가 보는 것을, 가시광선이 사물을 때리고 반사되는데 그것이 우리 눈을 통해 망막에 맺히고 그것을 뇌에서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 내부의 빛이 눈을 통해 밖으로 나와 사물을 본다고 생각했다(마 6:22-23 참조). 우리 내부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어둠이 아니고, 빛이 없으면 낮도 낮이 아니다. 신앙적 분별력, 그것이 나오는 건강한 토론의 문화가 부실하니 성경에 대한 무지한 해석과 열광주의적 신비 체험 강조,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대한 맹신이 쉽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그것은 이른바 정통이고 이단이고 가릴 것 없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밀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는 비옥한 터전이 되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마음이 비통하기 이를 데 없다. **김학철**